새 책

▶품위 있는 삶(정소현 지음)=2008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양장 제본서 전기'가 당선돼 작품활동을 시작한 작가가 7년 만에 펴낸 신작 소설집이다. 기발한 상상력과 우리사회를 꿰뚫는 깊이 있는 시선으로 2019 이효석문학상 최종심에 오른 표제작을 비롯해 여섯 편의 단편이 실렸다. 예기치 못한 죽음, 혹은 미리 준비하거나 설정해놓은 죽음 앞에서 허덕이는 인간을 다루고 있다. 창비. 1만4000원.

▶굉음의 혁명(브래드 톨린스키 외 지음, 장호연 옮김)=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자유와 아름다움, 반항의 상징이었던 일렉트릭기타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상징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 책에는 일렉트릭기타 100년의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그들이 만든 악기만큼이나 다양하고 독창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세상을 바꾼 창조적 아웃사이더들의 목소리가 되었던 일렉트릭기타의 장대한 이야기다. 뮤진트리. 2만2000원.

▶감각의 역사(진중권 지음)=미학자인 저자가 고대 그리스의 감각생리학부터 들뢰즈의 현대미학까지, 이성이 진리의 근원으로 여겨지면서 철학의 변방으로 밀려났던 감각학의 역사를 복원했다. 고대의 물활론부터 중세 아랍의 광학, 감각을 이성 아래 포섭한 근대철학, 새로운 학문의 원천으로서 인간의 몸과 감각체험이라는 주제를 집중 조명한 현대미학의 여러 논의를 아우른다. 창비 2만5000원.

▶1960년생 이경식(이경식 지음)=40년에 걸친 일기와 편지를 묶은 문집이다. 유신 말기에서부터 최근까지 정치와 경제의 격동 속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무엇을 꿈꾸며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좌절하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 왔는지, 현재 시점이 아닌 당시의 실시간 시점으로 드러낸다. 한 개인이 아닌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서전이며, 지난 40년 역사의 정서적 기록물이다. 일송북. 1만8500원.

▶새로 쓰는 고구려 역사(박경순 지음)=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역사 왜곡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반도의 역사에 머물게 하고 있다. 동아시아 최대 강국이었던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와 역사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게 도와준다. 내일을여는책. 2만원.

▶나이 들어도 내겐 영원히 강아지(우스키 아라타 지음, 박제이 옮김)=농촌진흥청이 동물병원 진료차트를 기준으로 반려견 나이를 분석한 결과 10세 이상이 17%, 7세 이상이 28%로 반려견도 고령화되고 있다. 반려견의 노화는 사람과 비슷하게 진행되며, 의료비 부담도 커진다.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개의 생애 단계에 걸쳐 다루고 있다. 청미. 1만4000원.

표성준기자

임진왜란의 또 다른 영웅 제주마(馬)

의병장 고경명 부자의 '정기록'

전쟁 중 제주도에 보낸 격서
고종후 "전마 보내달라" 호소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이 제주에 격서를 보내 군마를 요청할 만큼 제주마는 왜국의 보병에 맞설 거의 유일한 전력으로 평가됐다. 대표적인 혈전으로 꼽히는 충남 금산에서 왜적과 싸우다 전사한 의병장 고경명 부자가 당시 제주 절제사와 제주의 유력가문에 전투마를 요청하며 보낸 격서 등이 번역돼 책으로 나왔다.

제주교육박물관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최근 향토교육자료집 '국역 정기록'을 펴냈다. 조선시대 의병장으로 활약한 고경명(1533~1592)과 그의 맏아들 고종후(1554~1593), 둘째 고인후(1561~1592)가 남긴 정기록은 세 부자가 순절한 뒤 1599년 고경명의 여섯째 아들인 고용후(1577~?)에 의해 발간됐다.

책은 고경명 부자가 의병을 일으키기 위해 각 지방과 각계의 인사들에게 보낸 격서와 서한, 사후에 왕 또는 왕세자로부터 영전에 보내진 제문과 발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왜란 중 전라도와 제주도 등 각 도에 보낸 격서(檄書)와 통문(通文) 등을 담고 있어 긴박한 전황과 그들의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고경명은 임진왜란이 발생한 1592년 6월 제주절제사 양대수에게 보낸 격서에서 왜국의 보병을 제압할 기병이 필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탐라는 말이 골짜기를 뛰어넘는다 하니 오직 사냥함에만 도움이 됨이 아닐 것이요… 배에 가득히 실어 바다를 건너게 하는 은혜를 입는다면 거의 우리 군대의 위용이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고종후는 '제주의 세 가문에 보내는 통지문(通濟州三家文)'에서 "제주, 정의, 대정 세고을에 거주하는 고씨, 양씨, 문씨 세 가문"을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본도에는 공관에도 사가에도 땅을 쓸어버린 듯하여 군기와 전마를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엎드려 애걸하오니 재력에 따라서 전마를 내주시거나…."

실제 제주마는 임진왜란 때 전투마로 투입돼 의병들의 발이 되어 곳곳에서 활약했다. 국역은 한학자로 활동 중인 김영길씨가 맡았다. 비매품이지만 사이버제주교육박물관(cyber.jjemuseum.go.kr)에서 전자책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일제 강점기 신문기사로 본 제주경제

진관훈의 '오달진 근대제주'

일제 강점기 제주사회를 수탈과 단절의 시대로만 봐야할까. 진관훈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의 '오달진 근대제주'는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출발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일본이 제주사회를 무력으로 강제통치했지만 그 기저에는 각종 경제 활동을 영위하며 자존적 삶을 이어갔던 제주도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제주사회의 주역이었던 도민의 생활과 경제적 성과를 제대로 살피려면 종속지 의미를 넘어야 한다고 했다.

표제에 달린 '오달지다'는 근대 제주를 이끈 실질적 주체인 제주도민들의 잠재력 역량과 저력에 방점을 찍은 어휘다. '신문기사로 본 근대 제주 경제와 사회'란 부제처럼 저자는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일제 강점기 제주지역 신문기사 자료집을 실마리로 식민지 당국이 펴낸 공식자료 이면에 있는 '오달진 근대제주'의 면모를 실증해나갔다.

제주 최초의 상점인 박종실 상점으로 문이 열리면 식민지 지배체제 하에서 적응하고 때론 저항하며 경제적 성과를 창출해낸 인물들이 잇따른다. 산남 제일부자 강성익, 오현학원 설립자 우공 황순하, 1922년 제주면 건입리에 자본금 15만원을 투자해 제주상선 주식회사를 세운 최원순, 해운과 무역업에 종사했던 김임길, 소주 제조업 이도일 등이다.

제주 경제의 성장엔 제주 해녀와 도일(渡日)한 도민들의 역할이 특히 컸다. 1923년 12월 14일자 조선일보, 1925년 4월 26일자 동아일보 등은 한림, 조천, 애월 등에 우편취급소 별정국이 설치되는 기사를 실었는데 이는 도외로 물질 나간 해녀들과 재일 도민들의 송금 업무와 연관이 있다. 우편국을 통한 출향 해녀들의 송금액은 1930년 한해 3860명, 90만8000엔에 이르고 도일 제주 도민들 역시 같은 해 79만9180엔을 보냈다. 이를 계기로 제주지역 가계 현금 보유량이 늘어나며 소비 수준이 변화하고 소비 규모도 커졌다. 저자는 이것이 일제 강점기 제주지역 토착 자본 형성의 근간이 되었고 제주 경제 변동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학고방. 2만2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저자와 함께 '복면의 세월' 양영수 작가

"4·3 참극 세계인식 깊어지는 계기로"

제주4·3을 다룬 두 번째 장편을 낸 양영수 작가는 4·3이 세계인식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그가 다시 장편소설로 붙든 건 제주4·3이다. 그 엄청난 비극이 이 땅의 평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기운이 되지 못한 채 진영논리의 대립각이 아직도 완강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신작 장편 '복면의 세월'을 펴낸 양영수 제주대 명예교수. 대학에서 퇴임한 뒤 글쓰기에 전념해온 그는 앞서 장편 '불타는 섬'(2014)으로 제2회 제주4·3평화문학상을 수상했다.

어린 시절부터 4·3 역사의 상흔을 곱씹으며 살아왔다는 그에게 4·3 소설은 언젠가 써야 할 일종의 책무였다. 4·3의 역사적 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불타는 섬'을 내놓았지만 못다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번에 또 한번 70여 년전 4·3의 현장으로 향해 과거와 오늘을 잇고 내일을 그려냈다.

일종의 책무였던 4·3소설
4·3문학상 수상 후 두번째
베트남전쟁 등 시공간 확장

양 작가는 "최고의 소설 테마는 사랑과 전쟁"이라고 했는데 '복면의 세월'에 그 둘이 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4·3과 6·25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김대중정부 시기 남북이산가족상봉 등으로 치달으며 문창주를 주인공으로 3대에 걸친 그들의 생애에 사랑과 전쟁이 얽히고 설킨다.

문창주의 부친인 문진섭은 제주읍 화북마을 부잣집 3대 독자로 4·3 당시 반미좌익운동에 참여했고 북한 인민군에 합류한다. 아버지에 얽힌 연좌제로 모범생이던 문창주는 국립체신고 입시에 떨어진다. 창주는 대학 재학 중 참전한 베트남전에서 '제국주의 미국'의 실체를 확인하는 한편 그곳에서 베트공 여전사와 사랑에 빠진다. 두 사람의 인연은 제주로 이어져 창주가 운영하는 감귤농장에서 살아난다.

"과거든 현재이든 우리 모두가 공동운명체라는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양 작가는 이번에 시간과 공간을 확장해 입장을 달리하는 인물들을 등장시켰다. 숱한 세월의 파고를 넘는 동안 인물들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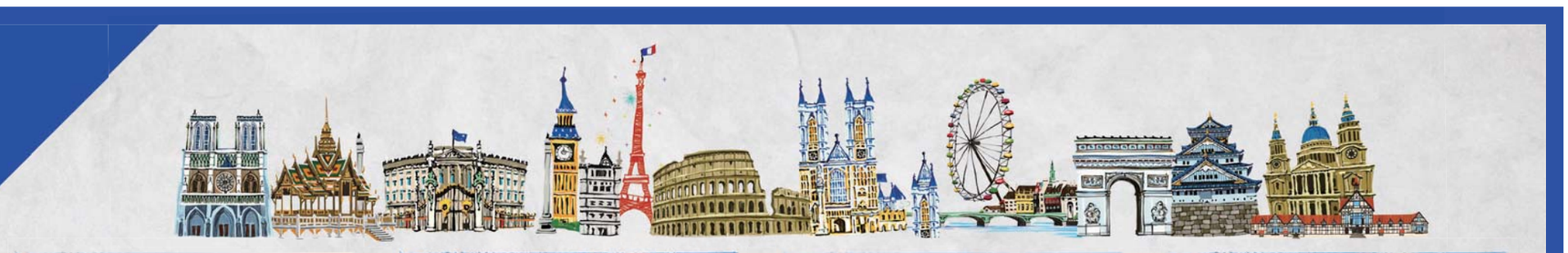
그는 "반미론자가 친미를 혐오하거나 친미론자가 반미를 백안시하는 과거의 불행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4·3사건이 수난과 원한의 역사이든 실패와 회한의 역사이든 이를 통해 세계인식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했다. 평민사. 1만6800원. 진선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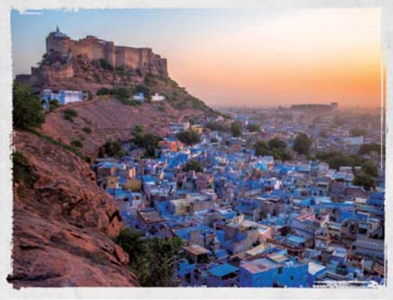
마음이기억하는여행
한진관광
KAL 투어 KALOPAK

예약문의 : 제주지점
742-7217
www.KALTOUR.com
제주시청점(이색투어) 758-2000

한진관광 멤버십!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세요~!

협찬 KOREAN AIR 50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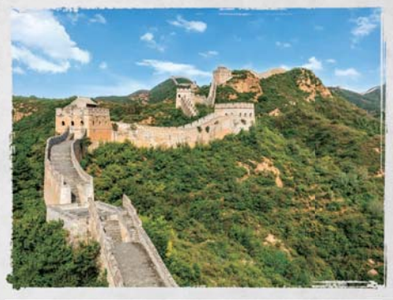




[품격] 대한항공BEST
인도 골든트라이앵글+ 라자스탄 일주[국내선 1회] 9일
₩ 2,990,000
출발일 : 11/14
최소출발인원 : 8명
일정 : 제주-김포-인천-델리(1)-아그라(1)-아바네리-자이푸르(1)-푸쉬카르(1)-조드푸르(1)-우다이푸르(1)-델리(1)-인천-김포-제주
선택관광 : 있음 ①,②

초특급 호텔 이용
인도 골든트라이앵글 [자이푸르 연박] 6일
₩1,670,000+90달러
출발일 : 11/8, 22
최소출발인원 : 8명
일정 : 제주-김포-인천-델리(1)-아그라(1)-파테푸르시크리-자이푸르(2)-델리-인천-김포-제주
선택관광 : 있음 ①,②

대한항공
중국 10대 명산 북경/백석산 4일
₩731,600~
출발일 : 10/16, 19, 24
최소출발인원 : 10명
일정 : 제주-북경-래원(1)-백석산-북경(1)-북경(1)-제주(1)
선택관광 : 있음



대한항공
북경/만리장성 [랑팡 쉐라톤] 4일
₩581,600~
출발일 : 10/16, 19, 24
최소출발인원 : 10명
일정 : 제주-북경(3)-제주
선택관광 : 있음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일반여행업 등록 제8호(서울시 중구청 등록) (주)한진관광 서울시 중구 소공로 88(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2층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 가입(기획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공통사항 : 상품가격 옆에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입니다. ■호텔 : 1급호텔이상(2인1실기준) ■식사 : 전일정 식사제공(단, 일부상품의 자유시간중 중/석식 제외) ■최소출발인원 : 10명이상(일부상품 제외) ■교통편 : 항공/버스/페리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음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에 의해 변동 가능 ■여행불편 처리센터 : 02)726-5672~73 ■안전경보단계 : ❶여행유의 ❷여행자제 ❸철수권고 ❹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2019.8.6 업데이트 기준) ■여행상품 가격 포함내역 :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항공택스,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운송/숙박/일정상의 식사요금, 기사&가이드 경비(현지 지불), 여행자보험 1억원, 현지관광입장료 등, 일정표상의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경비 포함(단 자유여행 상품은 미적용) ■각국 비자비용 상품가격 외 별도지불 ■선택경비 : 선택관광(경비 별도)의 유무는 상품의 일정 옆에 표기하였으며,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으며 이에 따른 대체 일정이 제공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